

다섯째 날

9.9(토)19:00~20:30

• 진행 : 변우현 방송인

1부

:: 사물놀이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 제주 아리랑, 설문대할망 아리랑

제주아리랑보존회

2부

:: 꽃자왈의 숲, 달빛 물안개, 캉캉

흠피리오카리나 공명

:: 태평성대, 진도북, 제주여인들

제주도립무용단

3부

:: 아꼬운 친구, 산굼부리, 꼭 안아줄래요,
우리들의 마법학교

도란도란 중창단

:: 너의 의미, 목로주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개똥벌레

지호락

태평성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으로 한국적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궁중무의 일종이다. 왕과 왕비의 위엄을 드러내며 꽃과 한삼으로 나라의 안녕과 화평을 도모한다.

진도북 북춤과 소고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이다. 북춤은 주로 농악의 북잡이가 추는 춤으로, 북채 2개를 양손에 들고 북을 치면서 추는 쌍북채춤으로 변화무쌍한 리듬뿐 아니라 춤사위가 화려하고 흥이 있다.

제주여인들 제주도 여인들과 더불어 전통으로 내려온 물동이인 대바지는 제주도과 떨어질 수 없다. 대바지를 이용한 춤 '제주 여인들'은 비록 여자들의 고달픈 삶을 드러내지만 미적으로 풀어 아름답게 표현했다.

출연팀 소개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제주민속촌 상설 공연을 기반으로 2013년도부터 해외진출을 성공적으로 해내어 2015년 에든버러프린스페스티벌 '코리아시즌' 5개 팀 안에 선정이 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단체이다.

제주아리랑보존회

제주민요전공자로 구성되어 제주아리랑을 알리고 보급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현재 제주민요 대중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민요를 가르치고 있으며, 공연도 꾸준히 하고 있다.



흠피리오카리나 공명

제주에서 유일한 오카리나 전문 연주팀으로, 제주에서 직접 흠으로 빚어 만든 흠피리로 제주의 바람과 자연의 선율을 담아낸 곡들을 연주하고 있다. 더불어 클래식, 팝, 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부드러운 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물하고 있다.

• 오카리나: 이정순 · 건반: 조지영



제주도립무용단

1990년 3월 2일에 제주도립민속예술단으로 창단되었다. 지금까지 700여 회의 제주토속의 예술향기가 넘쳐나는 다양한 작품의 공연활동으로 국내·외에서 정상의 공연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도란도란 중창단

2016년 8월 창단하여 KCTV 제주어창작동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음악극 만들기,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감성 충만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호락

제주대학교 직원으로 구성된 기타동호회로 2013년에 창단. 지역사회 재능기부 공연과 아라대동제 공연 등 직장내 여가 선용을 통한 공연을 활발히 하고 있다.

